

일제시대의 한국 醬類工業史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f Korean JANG Kind Industry under the Japanese Regime

목 차

- 1. 서론
- 2. 京城의 장류공업
- 3. 경상남도의 장류공업
- 4. 인천의 장류공업
- 5. 馬山의 장류공업
- 6. 끝으로



李 漢 昌*
Lee, Han Chang

1. 서론

장류가 한국에 있어서 전통식품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가정에서 만들어 식용해 왔다. 개화기 이후 한국에도 서서히 산업사회화의 바람이 일게됨에 따라 각종 공업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나 장류만은 그 틀에 끼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일본인들이 정치적 침략의 우산 밑에서 경제적 침략을 병행했고 장류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소비는 한국인보다는 일본인들에게 의존하던 것에 불과했다. 즉 일제시대의 장류산업은 한국인의 경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산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장류산업은 그 기반이 일제시대의 장류산업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에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는 일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1924년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전국에는 日本人이 경영하는 간장공장이 102 개소, 된장공장은 17 개소로 나타나 있다.

<표 1> 장류업계의 실태(1924)

업종별	공장수	자본금(圓)	고용						生産額(圓)
			日本人		朝鮮人		中國人		
			男	女	男	女	男	女	
간장공장(日本人)	102	3,220,200	173	2	409	21	22	3,197,085	
된장공장	17	3,084,000	6	-	22	-	2	799,944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식품·농화학기술사, 이학박사, 시조시인, 전 동덕여대 교수.

이 무렵 다른 업종에서는 한국인의 기업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정미업이나 막걸리, 소주 업종에서는 한국인 경영의 업체가 많았으나 장류업은 이때만 해도 아직 한국인에게 기술이 이전되지 않았던 관계로 日本人 독점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금을 보면 102 개 업체중 간장제조가 17 개에 불과한 된장제조업체와 비슷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된장제조는 공장수는 적지만 그 규모가 비교적 컸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그러나 生産額에서 보면 간장은 3,194,085圓이며 된장은 그에 대해서 약 25%인 799,944圓에 불과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한다. 고용면에 있어서는 급료가 저렴한 한국인을 비교적 많이 채용하고 있다.

또 이때의 장류값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장류값(1924) 단위 : 圓

	단위		京城(서울)	부산	신의주	(기타 생략)	平均
간 장	18 l	内地製	1.05	0.47	1.00		0.89
		朝鮮製	0.85	0.66	0.70		0.68
된 장	375g	内地製	-	0.09	0.12		0.11
		朝鮮製	0.08	0.08	0.08		0.09

* 日本本土에서 수입품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표 2>에서 보면 간장이나 된장이 다같이 수입품은 土産에 비해서 가격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고 지역별 가격차이를 보면 수입간장은 부산이 가장 저렴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부산이 수입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가지만 土産의 0.66圓에 비해서 수입품이 0.47圓이라면 수입품이 71% 정도의 가격에 유통되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국내의 生産量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며 이 무렵을 전후해서 한국 내에는 많은 양의 간장이 日本 本土로부터 수입되었었는데 그 실상은 <표 3>과 같다.

<표 3> 年度別 간장移入量

年度	1912	1915	1918	1921	1924	1927(昭和元年)
수량	159,010	127,290	83,461	218,163	202,830	343,043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한일합방(1910년) 초기에도 상당량의 간장이 수입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으나 그 후 양이 급감하는 이유는 점차로 현지(한국) 생산체계가 갖추어져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日本人의 거주 증가는 現地産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으로 1921년을 기점으로 수입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 工場數 其他의 年度別 변화

단위 : 人, 개, 圓

年度	1924		1929		1937		1940	
	간장	된장	간장	된장	간장	된장	간장	된장
공장수	102	7	101	7	70	-	69	-
자본금	3,220,200	3,034,000	3,785,000	491,680	-	-	-	-
종업원수	627	30	603	30	738	-	843	-
생산액	3,194,085	799,944	3,388,088	182,541	21,281,642	8,500,203	31,183,916	10,725,253

* 그중 1개는 조선인 경영(자본금 25,000 \ 종업원 男 2, 女 1)

資料 : 京城商工會議所 各年度 月報

** 간장, 된장, 식초를 합한 것

일제시대의 장류공장수의 소장을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점차로 감소하여 일제 말기에는 식초공장까지를 합해서 69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생산액은 1924년에 비해서 간장이 3,194,085圓에서 31,183,916圓으로 근 10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된장의 경우는 799,944圓에서 10,725,253圓으로 약 13.4배로 증가하였다. 이 시대의 물가상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런 비율만으로는 장류공업의 성장세를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의 변화 실상을 알아본 바는 <표 5>와 같다.

<표 5> 장류와 쌀값의 지수적 변화(소매) 단위 : %, 圓

年度	1933	1937	1942
白米	67.66(0.36*) [100.0]	133.0[171.3]	175.47 [225.9]
간장	67.27(0.20*) [100.0]	85.7(0.33) [127.4]	135.8[201.8]
된장	74.0 [100.0]	116.0(0.19) [156.8]	220 [156.7]

()內는 Kg(0)당가격, []內는비교, *는 1932년의 단가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연도별)

<표 5>는 1933년에서 1942년까지의 쌀값과 장류가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 기간에는 된장값의 지수가 가장 선도적으로 상승해서 9년동안에 지수 297.3을 기록 한 반면 간장값의 지수 변화는 201.8이며 쌀값의 지수는 225.9를 나타내고 있다. 된장값이 유달리 상승된 이유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표 4>에서 된장의 생산액이 간장

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을 볼 때 공급부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표 4>와 <표 5>에서 추산컨데 1929~1942년의 장류업신장은 최소한 5배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로 장류공장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몹시 궁금했던 점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추산으로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다.

<표 6>은 1937年度の 각 道別 장류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간장에 있어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道는 平安北道이며 다음이 平安南道이다. 日人이 가장 먼저 간장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부산 지방(경상남도)이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이나 항구도시인 인천을 끼고있는 경기도는 평안북도의 반 또는 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량으로 나타나 있으니 으아스러운 점이지만 또한 그것을 뒷받침 할 자료가 없으니 궁금하기 짝이 없다.

된장에 있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19,654톤을 생산하고 있고 부산을 끼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2位를, 황해도에서 3位로 13,512톤을 생산했고 서울이나 인천을 끼고있는 경기도에서는 겨우 4位로 9,876톤을 생산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현상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표 6> 各 道別 장류생산량(1937)

단위 : kl, ton

道別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壤	平北	江原	咸南	咸北	총계
간장	45,013	17,305	20,220	6,325	25,234	45,974	35,781	32,365	65,101	77,052	7,077	31,123	4,997	413,569
된장	9,836	5,283	19,654	1,269	5,372	13,399	12,552	4,608	2,575	8,197	6,030	1,919	2,708	93,405

資料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2. 京城의 장류공업

서울에는 1910年(한일합방의 해)에 이미 日人의 수가 17만 여명에 이르렀고 또 한국인도 日本式 간장을 다소는 소비했을 것이므로 이미 상당한 장류 소비량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표 7>에 의하면 1912년까지는 간장, 된장공장이 서울에 8 개소, 용산에 6 개소, 합해서 14 개소의 장류공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京城·龍山의 日本人 製造業數 現況(1912年 5月末)

業名	京城	龍山	業名	京城	龍山
된장·간장 製造業	8	6	양초 製造業	1	-
煙草 製造業	48	1	製紙業	1	-
鐵工業	8	6	洋燈硝子 製造業	1	-
家具 製造業	18	6	製粉業	3	-
建具 製造業	18	3	清涼飲料 製造業	2	-
油 製造業	7	2	酒類 製造業	8	8
金銀細工業	8	-	菓子 製造業	65	15
게다 製造業	12	1	荷車 製造業	-	2
製靴業	11	6	石炭 製造業	-	1
비누 製造業	2	-	計	236	62
새끼줄 製造業	2	-			

資料 : 서울 通史, 1972

<표 8> 京城의 醬類業體(1929年)

名稱	營業種目	電話番號	振替口座	所在地
山場醬油釀造場	醬油釀造販賣	本 3546	京1732	本町 5, 44(충무로 5가)
井町商店	醬油釀造販賣, 和洋酒販賣	-	-	比米槍町 142(북창동)
山邑酒造會社	酒類, 飲料水, 味清醬油製條販賣	本 849	京 75	明治町 2, 46(맹도2가)
大東醬油社	醬油原料製造販賣	本 1363	京 1407	(貫鐵洞 226)

()內는 현재의 동명 資料 : 京城便覽(白寬洙)

또 그후(1929年)에 간행된 京城便覽(白寬洙編)에 의하면 <표 8>과 같이 장류업체 4개가 영업종목, 所在地, 전화번호, 우체국구좌 등과 더불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 統計資料集에 있는 것을 보면 8개 공장에 대해서 <표 9>에서와 같이 설립자와 설립年月 및 所在地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1932年의 資料(서울통계자료집)에 보면 京城府 부근 邑面別 工業現況이라 하여 品名과 기타 사항 등이 소개되어있다.

<표 10> 漢芝面*의 工業現況(1932年末)

品名	수량	단위	가격	제조호수	제조자구분
醬油	1,642	100 l	18,000圓	3	日本人
참기름	3,400	kg	3,820	4	韓國人
약주	50,680	100 l	11,236	2	韓國人
탁주	410,283	100 l	363,904	2	韓國人
양말(면)	3,400	打	4,420	3	韓國人
以下생략					

* 지금의 한남동 資料 : 서울통계자료집(1993年)

여기에서 간장값(l 당)과 참기름값(kg 당)을 비교해 보면 1 : 10.3으로 계산된다. 이것을 현재(1996. 11. 26日 韓國경제신문 물가표)와 비교해 보면 1 : 8.7로 그 당시 한남동 일대의 간

〈표 9〉 日帝時代の 서울의 장류업체(1932年)

공장명	설립자	설립년월일	소재지	현재의 동명
高見醬油釀造場	高見 簡	1904年 11月	靑葉町 3丁目 25	구한말 설립, 청파동 3가
(주)前田商店釀造場	(株)前田商店	1911年 2月	本町	3丁目 73 층무로 3가
藤田醬油釀造場	藤田卯三郎	1912年 10月	花園洞 69	예관동
美濃屋醬油釀造場	禁 久七	1913年 10月	崇仁面 新設里	신설동
金龍味?製造場	原 管一	1914年 5月	元町二丁目 4	원효로 2가
野田醬油(株) 京城工場	野田醬油(株)	1915年 11月	蓬萊町 4丁目 11	봉래동 4가
杉本醬油釀造場	杉本義失	1922年 3月	黃金町 3丁目	을지로 3가
內藤醬油釀造場	內藤 竹	1924年 7月	黃金丁 5丁目	을지로 5가

資料 : 서울통계자료집

장값은 참기름값에 비해서 비교적 高價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적으로 현재의 몇 가지 物價를 표시한 것은 〈표 11〉과 같다.

〈표 11〉 도매물가표(1996. 11. 26)

品目	단위	가격	비고
헛쌀경기미 상품	20kg	42,000(2,100)	1,869/ l
헛쌀호남미 상품	20	38,000(1,900)	
건멸치(중멸) 최고경탁가	3	31,000(10,333)	
김(개량)	1두	1,300	
밀가루(중력 1동)	22	9,200(418,2)	
간장양조	920		
된장	500	660(1,320)	
고추장	500	1,650(3,300)	
참기름 산매	300	6,000(20,000)	

()內는 kg(l)당 단가

資料 : 韓國經濟신문

또 1932年度 京城의 몇 가지 物價를 보면 〈표 12〉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1932年度는 대단한 불경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物價가 2년 동안에

91.7%~67.3%로 하락하고 있다(이것은 곧 회복되었다는 설명이 있음). 특히 간장값(67.3%)과 된장값(74.1%)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다. 이 시대(1932年)의 장류값과 쌀값(〈표 12〉) 및 현재의 그것(〈표 11〉)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13〉과 같다.

〈표 12〉 京城의 몇 가지 物價(1992年) 단위 : 圓

品目	단위	1930年	1932年	물가변동(%)
白米(石拔1等)	石	28.51	21.32	74.8
大豆(龍山3等)	石	24.63	21.27	86.4
醬油(京城特上)	樽	5.50	3.70	67.3
味?(京城特上)	樽	13.50	10.00	74.1
소금(管製1等)	100斤	1.20	1.10	91.7

資料 : 京城商工會議所 月報

여기(〈표 13〉)에서 시대적 변천에 따른 장류값의 변화를 쌀값과 비교해 보면 옛날(1932年)에는 쌀값에 비해서 간장값은 1.54배, 된장은 4.17배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금(1996. 11)은 각각 1.09배, 0.62배로 낮아지고 있고, 특히 된장값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3> 장류값과 쌀값의 單價比較 單位 : kg, l, 圓, %

분류	品目	年度	
		1932	1996
품목	간장	0.205	2,300
	된장	0.555	1,320
	쌀	0.133	2,100
장류값/쌀값	간장	1.54	1.09
	된장	4.17	0.62

資料 : <표 11>과 <표 12>에서 計算(단 樽은 18l, 18kg로 계산)

계속해서 그후의 쌀값과 장류값의 변동을 비교해 보면 <표 14>와 같다.

표에서 보면 1933년과 1942년 사이에 쌀값은 225.9%로 오른 데 대하여 간장값은 200.7%의 상승에 그쳐 비교적 낮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된장값은 297.2%로 쌀값보다도 월등한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알

<표 14> 장류값과 쌀값의 年度別 比較 單位 : 圓, %

구분	年度	1933	1937	1942
		石	升	15kg
쌀	단위			
	가격	28.51	0.32	4.65
	지수	77.66(100)	133	175.47(225.9)
간장	단위	樽	升	2l
	가격	3.7	0.6	0.88
	지수	67.27(100)	85.7	135(200.7)
된장	단위	樽	斤	400g
	가격	2.1	0.7	6.2
	지수	74.0(100)	11.6	220(297.3)

()內는 1933년과 1942년의 比較(%) 資料 : 京城商工會議所 月報

수는 없으나 1942년은 태평양전쟁에서 전세가 일본에 불리한 상태에 놓여있던 시대다. 간장은 大豆粕 등을 利用해서 값싸게 酸分解간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된장은 콩이나 기타 곡물을 使用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극심한 식량사정으로 된장의 생산이 여의치 못했던 사정이 가격에 영

<표 15> 民族別 勞賃表(1929年) 單位 : 圓, %

		京城	木浦	大邱	釜山	平壤	新義州	元山	清津	平均
家作	內地人	3.60	3.20	3.33	3.50	2.80	3.50	3.80	4.00	3.47(100)
	朝鮮人	2.20	2.00	1.91	2.45	1.75	1.80	2.00	2.50	2.08(60)
	支那人	2.10	-	-	2.50	1.20	2.00	-	-	1.95(56)
指物	內地人	3.60	3.50	3.40	3.50	3.55	3.50	2.70	3.80	3.44(100)
	朝鮮人	2.20	2.80	1.91	2.20	2.15	1.50	2.00	2.50	2.16(63)
	支那人	2.10	-	-	2.50	1.03	1.80	-	-	1.86(54)
建具	內地人	3.60	3.00	3.40	3.50	3.55	3.50	3.50	3.90	3.49(100)
	朝鮮人	2.20	2.00	1.91	3.17	2.12	1.50	1.50	2.50	2.11(60)
	支那人	2.10	-	-	2.45	1.50	1.80	-	-	1.96(53)
船造	內地人	3.80	3.50	-	3.32	4.00	4.00	3.20	4.50	3.76(100)
	朝鮮人	2.20	2.80	-	2.00	2.00	1.80	2.00	3.80	2.37(63)
	支那人	-	-	-	-	-	2.00	-	-	2.00(53)

註 : 家作 = 집짓는 일(大木手), 指物 = 손재주 일(小木手)
 建具 = 건축 자재, 船造 = 배짓는 일(木手)
 內地人 = 日人, 支那人 = 中國人 ()內는 比較치

資料 : 京城商工會議所 月報

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장류 문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일제시대(1929年)의 민족別 노임을 참고적으로 들여다보면 <표 5>와 같다. 한국인은 日人에 비해서 노임이 60% 수준이며 특히 중국인은 한국인 보다 더 혜택을 받아서 5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노동착취의 明白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1941年의 민족別 임금 상황을 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직종別 노임(日當) (1941年) 단위 : 圓, %

직종	日人(지수)	韓人(지수)	日人對比 韓人 임금
장유제조工	80.00(133.25)	50.0(-)	62.5
목수(家作)	5.95(238.00)	3.80(253.33)	63.8
목수(指物)	5.50(220.00)	3.70(253.33)	69.0
목수(建具)	5.50(220.00)	3.70(246.66)	67.2
술제조工	90.00(129.57)	-(-)	-
공사판 막일꾼	3.50(194.44)	2.00(-)	57.1
미장공	6.00(200.00)	4.20(247.04)	70.0
이발직	1.50(150.00)	1.20(120.00)	80.0
식모	20.00(133.33)	10.00(142.85)	50.0
平人夫	-	1.65(235.71)	-

*는 月給, 指數 : 1933 = 100

資料 : 京城商工會議所 月報

이 표에는 장유공장 기술자(장유제조공)의 월급이 80원이었으나 술공장 기술자는 90원이므로 비교적 푸대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대에는 미장공의 대우가 가장 좋았었고 이발직은 가장 푸대접받는 직종이었다. 한국인의 노임은 日人에 비해서 50~70%로 지속적으로 볼 때는 1933年 이후 日人에 비해서 上昇의으로 나타나있다.참고적으로 다음 해(1942)의 쌀값은

가마당 上品이 24.8圓이었고 간장은 1 당 0.44圓, 된장은 kg당 0.28圓, 설탕값은 kg당 0.52圓이었다(京城商工會議所 月報).

3. 경상남도의 장류공업

慶尙南道史에 의하면 1924年에 道内の 장류업체 수는 간장공장이 15개, 된장공장이 2 개소로 나와 있다(<표 17>). 그런데 이미 구한말에 부산에만 해도 17개의 공장이 있었고 마산에도 몇 개는 있었을 것이므로 10여년이 지난 후의 공장 수 감소는 소비량의 감소로 보기는 어렵고 공장이 대형화되어가면서 군소공장이 도태되어진 현상이 아닌가 짐작된다.

<표 17> 경상남도의 장류와 기타 제조업(1924年)

단위 : 個, 人, 圓, %

업종	업체수	종업원수		生産額		비교
		日人	韓人	전액	1개 업체당	
醬油製造業	15	62	-	271,062	18,071	100
味?製造業	2	5	-	25,300	12,650	평균 15,361
製鹽業	41	437	90	1,003,279	24,470	159
清酒製造業	32	248	1	1,298,704	40,585	264
비누製造業	3	37	35	251,612	83,870	546

資料 : 慶尙南道史

<표 17>에서 보면 그 당시의 장류산업은 비교적 영세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1個 업체당의 생산액을 보면 표에 예시한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낮고 청주는 장류의 2.64배, 1업체당의 생산액이 가장 높은 비누의 경우는 장류의 5.46배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다.

4. 인천의 장류공업

日帝時代의 우리 나라 경제는 일본경제에 예

속되어 일본의 原料供給地, 商品市場 및 投資對象地의 처지에 불과했다. 日帝의 植民地 예속 경제화정책의 구체적인 작업은 1912년의 「土地調査令」과 1911년의 「朝鮮會社令」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법령은 일제의 한국에 있어서의 농업정책과 공업정책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나라 농촌을 支配·收奪하고 공업발전을 억제하여 우리 나라를 日本의 植民地化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천항의 수출과 京仁철도의 개통은 일본과 만주 그리고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각종 공업원료의 수입에 극히 편리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이 立地하는 데 하등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또 노동력은 인구의 도시집중 경향으로 양적 부족을 느낄 수는 없었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경인지방에 모여든 노동자는 도시 거주자로서의 훈련이 잘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이 확충되어 있어서 비교적 우수한 노동자가 많았으므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가졌었다.

仁川港에는 일찍이 정미업과 청주제조업, 양조업 그리고 장유제조업 등 飮食料와 관련이 있는 제조업이 生成, 발전되어 왔으나 이들 제조업은 近代의인 工場工業과는 좀 거리가 먼 초기의 형태였다. 원래 인천지방에는 천연의 공업원료나 재료 그리고 노동력이 풍부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부터 인천이 근대적인 공업지대로 성장, 발전하여 온 것은 교통기관의 발전과 교육기관의 설립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淸米·淸酒·醬油를 포함한 식료품공업은 생산액·공장수·종업원수 등의 구성비로는 극히 다수를 차지하지만 生産方式과 경영규모에 있

어서는 다른 新興工業部門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특히 식료품공업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시설확장이 억제되어 왔고 原材料를 배급 통제당함으로써 식료품공업 전반이 매우 부진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은 大豆·小麥의 집산지였고 天日鹽·再製鹽 그리고 中國原鹽의 공급이 용이하여 일찍이 대규모의 日本醬油(株)가 인천에 공장을 세워 활발히 가동되었고 그 후에도 山崎醬油醸造場·野田醬油·中野谷醬油 등이 특허 기계에 의한 독특한 제조방법으로 우수품을 생산하여 한국내의 수요증대는 물론 일본·중국 등으로 상당량이 수출되어 나아갔다. 1937년의 장유양조업체 현황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仁川 醬油工場 現況(1937年末)

企業體名	所在地	製品	創業年月	代表者
岸本醬油醸造場	杏洞	醬油	1987. 5	岸本保之助
倉重醬油醸造場	仁峴洞	醬油	1904. 7	相良一策
野田醬油(株)朝鮮支店	松林洞	된장·醬油	1906. 11	-
高杉醬油醸造場	萬石洞	된장·醬油	1907. 6	高杉 昇
山崎醬油醸造場	新興洞	된장·醬油	1910. 12	山崎好藏
中野谷醬油醸造場	新興洞	醬油	1918. 11	久保千代吉
有本醬油醸造場	柳洞	醬油	1919. 8	有本常一
藤井醬油醸造場	仙花洞	醬油	1924. 12	藤井茂三郎

資料：仁川商工會議所 年報

5. 馬山의 장류공업

馬山은 옛날부터 水質이 좋다고 전해지는 고장이다. 따라서 일찍이 日人들이 청주공장을 이곳에서 많이 경영하기에 이르렀고 1924년의 실적을 보면 우리 나라 生産量의 22%(11,000명)

를 이 고장에서 생산했다.

醬油양조공업은 淸酒처럼 대규모의 것은 아니었으나 年間生産高가 5,000石(900kl, 1928年)에 이르렀으니 이는 마산의 重要工業生産品이었다. 원료인 콩과 小麥은 인근에 풍부하였고 부족분은 황해도 淸津, 雄基 方面에서 도입하였다. 마산의 장유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경상남도 일원은 물론 멀리 元山, 淸津, 雄基 方面까지 팔려나갔다.

그 무렵 마산에는 6개의 장유공장이 있었는데 그 명단은 <표 19>와 같다

<표 19> 馬山の 장유공장(1928年)

공 장 명	비 고
福井醬油醸造場	平井酒造場の 姉妹會社
赤明醬油醸造場	
山田醬油醸造場*	
平井酒造場醬油部	
西田醬油醸造場	
江力醬油醸造場	

資料 : 馬山市史

*1905년 日人 山田信助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나 現 몽고식품(창업자 고 金洪球)이 인수했음.

6. 끝으로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장류공업은 오로지 일본인에 의해서 영위되어 온 특수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의 소비에 있어서도 한국인이 다소는 소비했겠지만 그 절대량은 일본인들이 소비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이런 사업에 진출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분야이다. 그러다 보니 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인에게 전수되는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아련 점이 해방 후의 우리 손에 의한 장류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대충 일제시대의 장류산업을 훑어봤지만 자료부족과 필자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내용은 산만한 것이 되어버렸으니 후일에 다시 보완해서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원고의 끝을 맺는다.

(원고 접수일 1997. 3. 5)